

3분기 금융지주 저축은행 5곳 중 3곳 '적자'... 4분기도 암울

저축은행 5곳 순손실 70억 기록
신한 순익 100억, 하나 7억 '선방'
우리금융·KB·NH는 모두 적자
내년 상반기 이전 반등 어려울듯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다섯 곳의 실적이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실적을 통해 저축은행의 3분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시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실적이 나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 가운데 3곳이 순손실을 기록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권에서 예상한 '하반기 반등설'은 빛나간 모양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5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농협)는 자회사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5곳은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하나저축은행을 제외한 세 곳이 모두 적자다. 1~3분기 실적을 모두 합치면 손실액은 확대된

다. 3분기까지 저축은행 5곳의 누적순손실은 250억원이다.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저축은행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면서 누적순이익 27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311억원) 대비

1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대형 저축은행이 적자 전환하는 등의 업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하나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7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33억원이다. 지난해 동기(209억원) 대비 84.1% 줄었다. 하나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16억원) ▲2분기(10억원) ▲3분기(7억원) 순으로 매 분기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흑자에 의미를 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나저축은행 순이익이 감소했다더라도 순이익이 난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다"라며 "대형 저축은행들 또한 대손상각을 고려하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우리금융·KB·NH저축은행은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다. 누적순

실은 284억원이다. 3분기 순손실 24억 원을 기록해 1~2분기 대비 적자폭을 줄였지만 흑자전환에는 실패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손실액은 260억원이다.

KB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손실액은 226억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34억 원 차이이다. 다만 3분기 성적표만 놓고 보면 우리금융저축은행보다 적자폭이 크다. KB저축은행의 3분기 손실액은 114억원이다. NH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이다. 지난 2분기 당기순이익 9억 원을 달성했지만 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NH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손실은 43억원이다.

저축은행권의 4분기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하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대출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108조8647억원이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매달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실적 반등 시기가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11월에 공개될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연체율에 따라 반등 시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 저축은행은 연체를 해소를 위해 대출 문턱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중저신용차주 확보 기조의 성과가 분수령인 셈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하반기에는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반등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ool.co.kr

은행대출·카드론 문턱 높아자 리볼빙으로 몰려

9월 카드론 취급액 2680억 감소
리볼빙은 1262억 늘어 사상 최대

지난 9월 카드론 취급액은 감소했지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리볼빙) 누적 잔액은 증가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풍선효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신용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취급액은 38조4170억원이다. 한 달 사이 268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달 리볼빙 누적잔액은 1262억원 증가한 7조612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잔액은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카드론 취급액은 감소했지만 리볼빙 누적 잔액은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뉴스시스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가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하반기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고신용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대거 몰린 것 또한 카드사에는 연체율을 해소할 기회로 자리 잡았다.

한동안 카드업계는 카드론 긴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0%대에 머

물던 연체율이 올해 1%선에 진입한 만큼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에 따르면 10월 카드사 9곳 모두 신용점수 500점 미만의 차주를 대상으로는 카드론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간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주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리볼빙 서비스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리볼빙 누적 잔액은 지난 3월(7조2150억원)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올해 리볼빙 누적 잔액은 연초 대비 2460억원 증가했다. 리볼빙 누적액 증가세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리볼빙 잔액 상단은 7조220억원이다. 올해 3분기 상단과 비교하면 5900억원(7.75%) 격차를 보인다.

금융당국 또한 리볼빙 리스크 관리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장을 던졌지만 사실상 공명볼에 그쳤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따라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만큼 차주의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전 세계 모든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금융

서비스다. 신용카드만 발급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현업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사와 차주의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소비자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 확대 및 여건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대출, 이자 감면 등의 포용금융을 통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포용금융의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정책에 따라 취약차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투기성 자금운용을 통해 내몰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금융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당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 보험료 인하 기대감

5개 손보사 9월 누적 손해율 0.5%p↑
전체 손보사 누적 손해율도 0.5%p↑
손보업계 "하반기까지 지켜봐요"

올해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차보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8.3%로 전월(77.8%)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5개 손보사의 9월 손해율은 평균 82.3%로 8월 평균(80.8%) 대비 1.5%p 상승했다.

▲삼성화재(85.1%) ▲현대해상

(81.3%) ▲DB손해보험(80%) ▲KB손해보험(82.3%) ▲메리츠화재(82.8%) 등 모두 80%대로 올라섰다. 이들 5개 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는다.

전체 손보사의 누적 손해율도 84.2%로 전월(83.7%) 대비 0.5%p 상승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배경으로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한 차량 운행 증가와 사고 건수 증가를 꼽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휴가철 시작이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적어 이동량이 늘었다"며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져 사고 위험률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사업비를 고려한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2%로 추산한다.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이미 손보사들은 한 차례 보험료를 인하했다. 지난해 4~5월 주요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및 사고 감소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1.2~1.4%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2~2.5% 추가로 인하했다. 당시 손보사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동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

올해 초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손보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겨울철 빙판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앞으론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손해율은 악화되는 추세고 실제로 하반기로 가면서 손해율은 높아진다"며 "10월 행락철, 11월·12월 빙판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있으므로 매년 하반기까지 손해율은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는 겨울철 등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보험료 인하를 이야기하기엔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보험료를 인하했는데 아직 올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하반기 요인들이 있고 아직 손해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점 자체가 너무 빠르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IBK기업은행-에너지공 총 2500억원 규모 RE100 펀드 공동투자

IBK기업은행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에 공동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펀드는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된다.

RE100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인 기업은행과 한국에너지공단은 본 펀드 공동 투자를 통해 RE100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RE100 달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